
Review

Hye-Kyung Lee
(Ajou University)

**Expressing the Self: Cultural Diversity and Cognitive Universals, Minyao Huang, Kasia M. Jaszczolt.
Oxford University Press (2018). 336 pp. £77 Hardback, ISBN 9780198786658.**

이 책은 영국 Cambridge 대학 언어학과의 교수인 Kasia Jaszczolt와 연구원인 Minyao Huang 두 학자가 편집하고 Oxford 대학 출판사에서 발간한 학술서로서, 자기(the self) 표현에 대한 범언어적, 다학제적 첨단 연구를 집대성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연구된 언어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등 다양하며 연구 방법론 면에서도 언어학적 철학적인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다.

자기 표현하기(Expressing the self)는 많은 언어들에서, 다양한 문법적, 의미론적, 구조적 범주에 기반한 표현들에 의해 구현된다. 특히,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처럼 경어법이 발달한 아시아권 언어에서는 일인칭을 적절하게 표현하기 위한 많은 용어들이 있다. 이 용어들을 대명사로 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언어학계에서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예, 손민호, 2013). 왜냐하면 대명사라는 문법 범주가 영어와 같은 서양 언어에 토대를 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수록된 연구들은, 문법이나 어휘에 대한 관심에서 보다는, 화자가 자신에 대해 가지는 생각의 상태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서 출발한다. 이 책의 궁극적 목표는 자기표현에 대한 학제간 이해를 이루고, 마음의 철학(philosophy of mind)과 자기표현의 범문화적 화용론을 융합하는 것이다. 이는 언어학과 철학에서의 연구 방법들이 상호 보완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 철학과 닿아있다.

이 책은 세개의 큰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 파트는 여러 언어들에서 사용되는 일인칭 지칭 용어들의 의미론적, 화용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다. 연구에서 다루어진 언어들로는 남미의 아라와크(Arawak)어, 티벳의 네와리(Newari)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이 있다. 이 논문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논의는 일인칭 지칭 표현의 대표적인 범주인 대명사가 범언어적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한 도구라는 것이다. 두번째 파트는 자기인식과 자기표현의 상호 관계를 다룬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인칭 지칭과 연관된 특정한 현상들의 언어적 외부화(externalization), 즉 자신의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일반화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세번째 파트는 보다 철학적인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지시(reference)와 지시하기(referring)에 관련된 철학적, 의미론적 연구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 철학자 John Perry는 “The incremental self”(11장)라는 주제 하에, 기존의 명제 이론과 다르게 더 나아가 점진적 진리 조건(incremental truth conditions)에 기반한 자기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펼치고 있다(Perry 2001; Korta & Perry, 2011).

언어학과 언어철학에서는, 지표적(indexical) 표현과 비지표적 표현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전제하여 왔다. 주지하듯이, 지표적 표현은 그 지시대상이 상황이나 담화자가 위치한 장소, 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표현으로서, 대명사가 대표적이다. 이 저서의 연구들은 일인칭 대명사를 포함한 자기표현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존의 언어학, 철학, 논리학에서 정설로 여겨지는 지표성(indexicality)/비지표성의 이분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서양언어 중심의 대명사 체계가 범언어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언어 데이터와 개별 언어문화권의 현상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을 통해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다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적 이론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저서의 연구들은 추후 이 분야의 연구에 큰 통찰력과 방향성을 선도하는 연구결과로 보인다. 다만 다양한 연구 분야와 연구자들의 참여로 인해 상호 보완을 위한 연구결과와 통합, 교류가 부족한 것이 아쉬운 점이다. 예를 들어 첫번째 파트에서 연구된 한국어, 일본어, 태국어는 상당한 유사점을 보이는데 이를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사한 문화와 양상을 공유하는 언어/문화권에 대한 보편성을 확보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일반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참고문헌

Korta, K., & Perry, J. (2011). *Critical Pragmatics: An Inquiry into Reference and Communic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erry, J. (2001). *Reference and Reflexivity*. Stanford: CSLI.

손민호(Sohn, M. H.) (2013). 한국어(Korean).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Seoul: Korea University Press).

THE AUTHOR'S ADDRESS**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Hye-Kyung Lee

Professor

The Department of English

Ajou University

206 Worldcup-ro, Youngtong-gu, Suwon, 16499, SOUTH KOREA

E-mail: hkleee@ajou.ac.kr

Received: 12 August 2022

Received in Revised Form: 17 August 2022

Accepted: 21 August 2022